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엠바고 :

즉시 보도 가능

배포 : 2023년 10월 25일(수)

한-카타르 정상회담 결과

- 대한민국 정상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카타르를 ‘국민 방문’ -
-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로 격상 -
- 에너지와 건설 중심의 양국간 협력을 투자, 방산, 농업, 문화, 인적교류 등 전방위로 확대 -

1. 「타밋 빈 하마드 알 싸니(Tamim bin Hamad Al Thani), 이하 ‘타밋」 카타르 국왕의 초청으로 카타르를 국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0.25. 수) 카타르 왕궁(‘아미리 디완’)에서 타밋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 대한민국 정상이 카타르를 ‘국민 방문’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2. (공식 환영식) 회담에 앞서 아미리 디완 궁 중앙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방문을 축하하는 공식 환영식이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카타르 측은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아미리 디완 궁 입구로 들어서자 기마부대와 낙타 부대가 호위하며 차량을 안내했습니다. 대통령은 아미리 디완 궁 중앙홀에 입장해 영접 나온 타밋 국왕과 함께 의장대의 사열을 받은 후 정상회담장으로 입장하여 카타르 측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3. (정상 회담) 공식 환영식에 이어 대통령과 타밈 국왕은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1974년 수교 이래 LNG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발전해 온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대통령은 카타르 측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내년도 양국 수교 5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카타르를 국민 방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지난 50년의 관계 발전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50년의 공동 번영을 함께 준비해 나가기를 바란다면, 한국은 카타르가 ‘국가 비전 2030’을 통해 국가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 타밈 국왕은 대통령의 국민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하고, 카타르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발전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절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양국 정상은 이번 대통령의 국민방문 계기에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관계 격상에 발맞추어 특히 방산 및 AI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 양국 정상은 이를 위해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소통 채널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이번에 체결된 ‘방산 군수 협력 양해각서’와 지난 6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바탕으로 양국간 국방, 방산 분야의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 또한 양 정상은 AI가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힐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라는데 공감하고, 향후 인재 유치, 데이터 공유, 가치 창출, 규범 정립을 포함한 AI 분야의 협력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양국 정상은 LNG 공급을 비롯한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이번에 우리 기업 (HD현대중공업)과 국영 카타르 에너지 간에 체결된 LNG 운반선(17척, 39억불) 건조 계약을 포함해 LNG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운반선 건조, 운영, 유지보수 등 전후방 산업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이 밖에도 양 정상은 인프라, 투자, 농업, 해운, 문화, 인적교류, 보건 등 상호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강점을 보유한 다양한 분야로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앞으로 동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실행해 양국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아울러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양국 문화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특히, 타밈 국왕은 카타르가 항만과 공항 운영, 농업 발전(식량안보), 종합 데이터서비스 센터 구축,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기술과 운영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하게 희망했습니다. 특히 인구 규모가 적고 외국인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카타르가 인프라 운영의 자동화를 꾀하고자 하며, 그 과정에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적극 호응하겠다고 말했으며, IT 강국인 한국이 모든 분야에서 카타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 한편 대통령은 카타르가 작년에 월드컵을 개최한데 이어, 현재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것을 축하하고, 한국도 이번 원예박람회에 한국관을 설치해 적극 참여 중이라고 말했으며, 타밈 국왕은 한국 측의 참여를 환영하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4. **(MOU 서명식)** 한-카타르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MOU 서명식이 개최되어 총 5건의 문건이 서명됐습니다.

※ 정상 임석 하 서명 문건 목록 별첨

5. **(한-카타르 오찬)**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타밈 국왕 주최 오찬에 참석했습니다.

- 이번 오찬에는 우리 정부 인사 외에 카타르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포함한 경제계 인사들도 참석해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 대통령은 오찬 계기에 타밈 국왕에게 한국으로 국민방문을 초청했고, 타밈 국왕은 내년 방한을 수락했습니다. 양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나가기로 했습니다.

6. **(정상 간 친교 일정)** 양 정상 내외는 10.24(화) 저녁 친교 만찬 일정을 갖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개인적인 친분과 유대 관계를 돈독히 했습니다.

첨 부 : 정상 임석 하 서명 문건 주요 내용. 끝.

정상 임석 하 서명 문건 주요내용

① “국가 공간정보 분야 협력 MOU”

- (서명자) (한) 국토교통부장관 - (카) 자치행정부장관
- (주요내용) 국가 공간정보 분야 정책 교류, 공동 학술연구, 기술협력 등 양국 협력 증진 모색

② 스마트건설, 건설기술, 인프라·건설 개발 분야 협력 MOU

- (서명자) (한) 국토교통부장관 - (카) 자치행정부장관
- (주요내용) 미래형 건설 공법·기술, 지속 가능한 건설·유지보수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

③ 스마트팜 분야 협력 MOU(개정)

- (서명자) (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카) 자치행정부 장관
- (주요내용) 2019.1월 체결한 스마트팜 협력 MOU 이행과 구체화를 위한 공동위원회 설립(국장급 대표) 및 회의 정례화 등 포함하여 개정

④ 중소기업 및 혁신 협력 MOU

- (서명자)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카) 통상산업부장관
- (주요내용) 양국 중소벤처기업 간 교류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분야 정책 대화 등을 통한 정책협의 및 협력사업
발굴, 중소벤처기업 상호진출 확대 노력 협의

⑤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 설립 MOU

- (서명자) (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카) 통상산업부장관
- (주요내용)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 협력 분야에
공급망, 디지털, 그린, 보건, 중소기업 등 新 통상 분야를
신규로 포함하여 협력 다각화